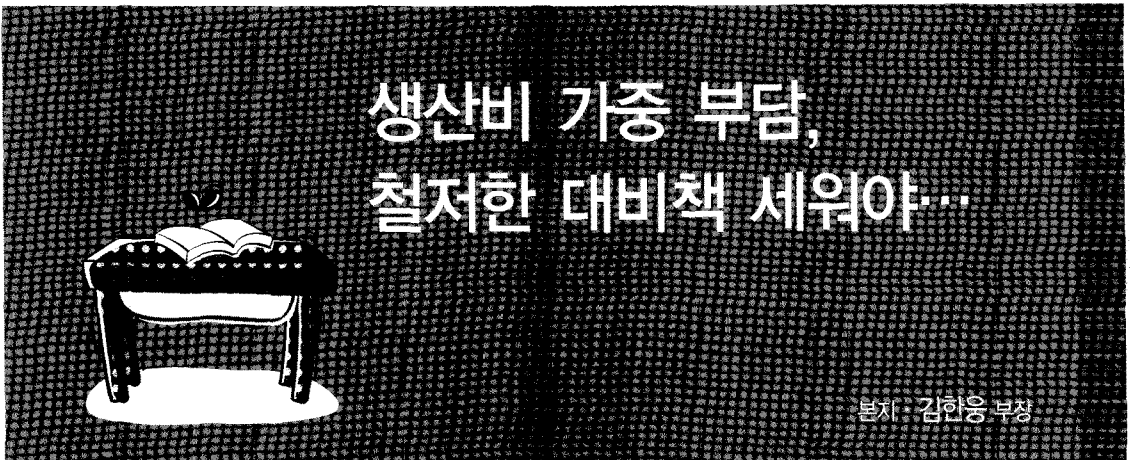


4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업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작년 말 발생했던 고병원성 AI도 한풀 꺾여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풀 가동되던 AI비상대책 T/F도 AI의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주간 중 3일만 가지기로 하는 등 90일간 정신 없이 달려온 가금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이후 발생신고가 없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나 하는 기대와는 달리 20여일 만에 경북 영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모두를 뜨끔하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이번만은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성 악화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수급 불균형을 보여왔던 닭고기 생산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물론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 이로 인한 영향이 닭고기 가격에도 미치고 있어 아직까지는 육계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종계 및 육계 사육환경이 나아지면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닭고기 업계에 있어 문제는 닭고기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 원유가격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국내 유가(油價)는 지속적으로 상승, 원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농장 연료비는 물론이고 생계 운반비, 도계육 운반비 등 곳곳에 복병이 숨어 있다. 또한 심상치 않은 배합사료가격도 걱정이다.

배합사료업체 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료가격 인상론이 거론되고 있다. 구제역과 AI로 인해 농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제역은 이미 안정단계에 들어섰으며, AI 역시 조만간 종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료가격 인상론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7월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되는 것도 계열화사업체, 농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강, 웰빙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따라잡고자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무항생제 생산을 꾸준히 늘려가고는 있지만 그 생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생산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육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육계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육시설이 열악한 농가들의 경우 항생

제를 구매해 자가 배합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또한 결국에는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오·남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축산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열악한 사육시설 등 육계산업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선결하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여러 정황들은 육계 및 닭고기 업체에 있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어디 누수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다.